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자전거 시민 패트롤' 운영

전주시, 맞춤 자전거도로 개설 의견 제시 이용시설 불편사항 개선사항 발굴 나서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타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시민 패트롤'을 운영한다.

각 동별로 동별 특성에 맞는 자전거도로 개설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전거 이용시설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건의하는 자전거시민패트롤이 구성되면서, 전주가 자전거 타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2일 시청강당에서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별 자전거 동호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별 자전거 동호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환으로 전주시 33개동에 자전거 동호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날 시는 전주시 33개 각동별 자전거 동호회원들에게 자전거 시민패트롤 위촉장을 수여하고, 동별 자전거 동호회원들의 역할 및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전주시 자전거 정책도 소개했다.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는 시민들로 구성된 자전거 동호회원들은 앞으로 회원들이 자율적인 생활속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친목을 도모하며, 자전거시민패트롤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타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시민 패트롤'을 운영한다.

활동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자전거 동호회에는 자전거를 사랑하고 생활용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자동차에 빼앗긴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생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올해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관통하는 도시의 대동맥인 기린대로의 덕진동 가린광장에서 풍남동 한백교까지 5.7km 구간의 차로를 줄이는 대신 양방향에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가린광장에서 조촌동 조촌교차로까지 기린대로 나머지 5.9km구간도 기존 차로를 줄이는 대신 자전거 전용차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도민을 위한 스피치 인문학 무료특강 개최

전북도 스피치과정 원우회가 주최하고 한국스피치리더서비면접컨설팅이 주관한 '전북도민을 위한 스피치 인문학 무료특강'이 최근 전주완주축협 강당에서 열렸다.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이 특강에서 방송인 김봉근 훈장의 강의가 있었다.

김 훈장은 "나는 내 자리에서 딱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국민 모두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바른 생각으로 행동하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는 온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람'으로 감싸야 한다는 주요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

김 훈장은 장자의 망측(忘足)은 '이치적(履之澌也)나라'를 강의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이 사회로부터 얻었다면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보건교사회, 난치병 제자 사랑 나눔 성금 전달

전북보건교사회는 최근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건강교육팀과 난치병학생 소속학교 선생님이 참석한 가운데 '난치병 제자 사랑 나눔 성금'으로 100만원씩 5명의 학생에게 총 500만원을 전달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제자 사랑과 교육공공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한 성금지원은 2001년부터 어느덧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75여명의 학생들에게 총 7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희귀난치병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보건교사들의 순수 성금으로만 지원되는 현실적 한계에 많은 학생을 지원하지 못하고 5명만 지원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북보건교사회 이경자 보건교사(순창제일고)는 "우리가 전달하는 적은 성금이 장기 치료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시달린 학생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 부디 빠른 쾌유와 함께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와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정읍시, 초산동민의날·효도문화축제 '성료'

정읍시 초산동주민센터와 초산동 발전위원회(위원장 옥치용)는 최근 호남중·고 해강관에서 제7회 초산동민의 날·제9회 효도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가졌다.

행사에는 어르신 등 지역민과 기관단체장 등 1500여명이 참여했다. 식전행사로 정읍시립악단이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기념식과 효도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초산 동민의장(효열장) 김에숙씨에 대한 시상 진행됐고 오일환씨와 김순남씨가 시장 감사패를, 한석홍씨가 발전위원장 감사패를 받았다.

효도문화 공연에서는 초청가수 노래와 각설이의 걸쭉한 입담 그리고 어르신들의 장기 자랑이 진행돼 어르신들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어르신들께 정성껏 마련한 선물도 전달돼 훈훈함을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 이세영 대학원생, 춘계학술발표대회 우수포스터 발표상 수상

전북대 이세영 대학원생(화학공학부 석사)이 최근 열린 2017년도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이 씨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Screening a Phage Display to Identify Specific Binding Peptide against Trans-2-monomer'이란 주제의 연구를 노인성 약취의 원인이 되는 'trans-2-monomer(T2N)'를 제거하고 처리 효율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발표해 많은 연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씨는 파지 디스플레이 선별기법을 이용해 T2N에 특이적으로 붙는 파지를 찾아 염기서열을 분석한 뒤 펩타이드를 제작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를 통해 향후 알데히드 계열의 해로운 물질과 약취를 제거하는데 응용할 수 있고 난백 추출물의 유용 가능성 검증 및 활용기술로도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은 기자



원광대학교병원 최두영 병원장, 대한병원협회 표창장 수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의 최두영 병원장이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표창장을 수상 했다.

최두영 병원장은 최근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열린 전북병원회 제30차 정기총회 및 정책세미나 기념식에서 본 상을 수상했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최 병원장의 국민 보건 향상과 병원계 발전을 위해 노력 해 온 헌신적인 봉사정신 공로를 높이 평가, 이번 상을 수여 한 것이다.

최두영 병원장은 교수로서 후학지도와 함께 강한 추진력으로 각종 국제사업 선정과 글로벌 경영 중심의 병원 발전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학회, 협회를 막론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고창 흥덕파출소,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 위한 생일축하 행사 가져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 흥덕파출소(소장 김광중)에서는 22일 파출소장 및 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한 내부민족 향상을 위해 생일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5월에 생일을 맞는 직원을 위해 동료 직원들이 축하를 해주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생일자의 케익 커팅식과 동료 직원의 생일축하 덕담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결혼

▲정성준(전북도시기사 근무, 전 전북도청 정공영 팀장·김영미씨 차남)군·이희희(전주농협 근무, 이정행·김희숙씨 딸)= 일시: 27일(토) 오후 1시, 장소: 웨딩의전당 2층 펠리체홀(전주역 앞), 연락처: 010-3681-1990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3일 동쪽(일간) (주)전주매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출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종양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32-3336	고창지사 53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66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010-8945-9335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94
	팔백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536-3787
	서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제보 288-9700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